



온유의 리더십 맹사성

패망한 고려의 신로 고불(古佛) 맹사성은 조선에 출사(出仕)해서 갖은 고생과 좌절을 겪었으나 비정치적 처신과 겸손, 청빈한 자세로 태종과 세종대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군주와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맹사성이 남긴 온유의 리더십은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나가기 할 후손들에게 길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교훈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절제로 처신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 조정에서 실력 있는 인재로 촉망받던 맹사성은 조선이 건국하자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지내게 된다. 그러다가 조선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권근이 맹사성을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천재'라고 적극 추천하여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다. 이후 맹사성은 세종대에 좌의정까지 오르는 등 성공적인 삶을 이뤄냈다. "자신을 낮추되, 지극한 겸손과 절제로 대하자"는 온유한 자세는 맹사성의 처신술이었다. 맹사성이 추구한 대인관계 소통방식은 뒷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되 겸손을 지키고, 앞사람에게는 정과 사랑을 담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맹사성의 군주를 섬기는 태도는 마치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였다. 일각에서는 그가 군주를 모심에 지나치게 겸양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과단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그의 온유함과 비정치적 소신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 온유하고 겸손하며 청빈하게 살았고 신분고하를 초월해 사람 사귀는 것을 즐겼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였을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대단히 깊었다. 악기



연주를 즐기는 연주자였으며 악기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 특히 늘 소를 타고 다니며 피리를 즐겨 불었고, 홀로 있을 때에도 피리를 자주 불기 때문에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피리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조선 초기 음악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예를 정비했다. 1431년에는 태종실록을 편찬한 공로로 좌의정이 되었고, 73세 때인 1432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지리학인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했는데, 이는 그가 이른 큰 업적 중 하나였다. 이 <신찬팔도지리지>는 현재 전해지는 본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조선 인문지리학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

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후 제작된 조선시대의 모든 지리지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세계 지리학사에도 이름이 날 났으며 조선의 지리학이 과학적인 인문 지리학으로 발전하는 첫 단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빈과 지극한 효성으로 모범적 삶

맹사성은 조선 최고의 청백리라 칭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청렴한 일생을 보냈다. 관직에서 번 돈으로 식량을 사먹었고 결코 다른 수입을 꾀하지 않았던 그는 식량을 사고 남은 녹봉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자신은 집 한 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현재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있는 맹시행당도 최영의 집을 물려받은 것이다. 행당(杏堂)이란 선비가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뜻인데, ㄷ자형 맞배집인 이곳은 백성이 살던 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맹사성의 집은 청렴거사의 집답게 비좁고 허술했으며 비가 오면 가구와 살림살이가 모두 젖었다. 그의 집을 찾았던 병조판서는 매우 협소한 집을 보고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정승의 집이 저러한데, 내 어찌 바깥 행랑채가 필요하리오"라며 자신의 바깥 행랑채를 할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맹사성은 효성이 지극해 자주 온양으로 부친을 뵈러 갔는데, 그때마다 하인 하나만 데리고 소를 타고 왕래했다. 좌의정까지 지낸 그가 마음만 먹으면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절제하고 삼갔으니 그것 자체가 후대의 공직자들이 본받을 일이다. 1438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대왕은 맹사성의 장례기간 동안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문상했다고 한다.*



우주 만물이 곧 신(神)입니다. All things in the universe is god.

▶ 이 세상 사람들은 신과 물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이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신과 사랑의 신, 즉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People in the world know that god and Matters are distinguished, but it is not true that matters and god exist respectively. In fact, god of life and god of death, or God and Satan, coexist in the world.

▶ 하나님의 신은 마귀 육에 갇혀 있는 고로 모든 만물이 썩고 있습니다. 신학박사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신의 정의를 물어 보면, 그들은 얼른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안 보인다고 말하며, 신이란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신의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s god of life is locked by satan, all Creation in the universe is rotted. Although Doctors of theology give lectures in the university, when actually asked about definition of god, they hesitate to give a definite answer. They say that god is not seen and mysterious, so nobody know true nature of god.

▶ 그럼 진짜 신이란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것이 영이요, 영이 마음이요, 마음이 생각인 고로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라 해서 영적 동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생각 자체가 영이라는 말이요, 생각 자체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Then, what is real god? God is spirit and spirit is mind. Because mind is thinking, human is said to be a spiritual animal as a thinking animal. Thinking itself means Spirit and thinking itself means god.

▶ 영 자체가 마음이요, 마음은 바로 생명이라고 했으니 살아 있는 생명 자체가 바로 신이요 영인 것입니다. 고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itself is mind. As the mind is equal to life, living life is the very god, or Spirit. The Bible says "All things in the world were made by God."

▶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은 신인데, 이 세상 만물이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으로 병존하고 있는 고로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육에 갇혀 있는 고로 만물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all things in the universe are god. However, as all things in the world coexist with God and Satan, they are falling in to decaying. This is because God is caught by Satan.*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등장하며 천당과 지옥 또는 윤회를 말해 왔다. 하지만 인간들의 생로병사를 극복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저 죽어서 천당이다, 지옥이다, 윤회를 한다고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천당과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왔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마귀의 포로에서 석방된 하나님인 조희성 이진자 구세주님께서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죽지 않게 살리고자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알려주시고 영생의 방법을 설교하셨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시고, 사람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으로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반대 생활하라, 희생적인 생활을 하라,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겨라" 이처럼 자유율법을 가르쳐 주신다.

나라는 의식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나라는 의식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 사람 몸속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화되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화하게 된다. 그러한 빛으로 화해 날 아나니는 시대가 곧 오는데 이를 맞이하기 위하여 초초로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낄 틈이 없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죄악의 때가 두껍게 끼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하루아침에 변혁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변화를 입을 수가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고 죄를 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예배를 보고 구세주가 내리시는 감로혜인을 받아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넘어지면 오뎅이처럼 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극기승자의 길을 걷고 있다.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인내로써 이기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의 빛으로 화할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편하게 가는 천당은 없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생과 진정된 천국이 보장되는 승리제단이야말로 이치와 조리가 딱 들어맞는 진정된 종교이자 학문의 전당이다! 실천하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는 법이다.*

참고는 기사

우리말 바꾸기 문장 성분의 호응

한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들이 호응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게 된다. 따라서 각 성분들이 서로 잘 호응될 수 있어야 바른 문장이 됨을 알고 연습해보도록 하자.

예1) 맛도 영양도 훨씬 많다.
'맛도 영양도'가 주어인데 서술어 '많다'와의 호응이 어색하다. 즉, '영양도 많다.'는 주술 관계가 어울리지만 '맛도 많다.'는 어색하므로 전체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라고 해야 바른 문장이다.

예2) 길을 다니거나 놀 때 사고 위험이 많다.
언뜻 보면 별 이상이 없는 문장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즉, '길을' 다음에 서술어가 병렬되어 나타났는데 '다니거나'와는 호응하지만 '놀 때'와는 호응이 어색하다. 이는 '길에서 놀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을 다니거나 길에서 놀 때

사고 위험이 많다.'로 해야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된다.

예3) 철수는 영수가 은희가 떠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문장도 예2)와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는 문장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른바 겹주어 구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련 주어와 서술어끼리는 근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어김으로써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이 문장은 주어-서술어 근접 원칙에 따라 '은희가 떠나는 것을 영수가 보았다고 철수는 말했다.'라고 바꾸게 되면 아주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예4) 자동 커피 판매기 → 커피 자동 판매기 / 급 차선 변경 → 차선 급 변경 / 완전 서비스 공차 → 서비스 완전 공차 / 절대 비밀 보장 → 비밀 절대 보장
잘 쓰이는 관용구들이지만 통사적으로 성분 호응 관계에 문제가 많은 예들로 후자처럼 고쳐야 정확한 표현이다.* 이슬우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신의 실체를 밝혔다
김상욱 역
해인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한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천국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